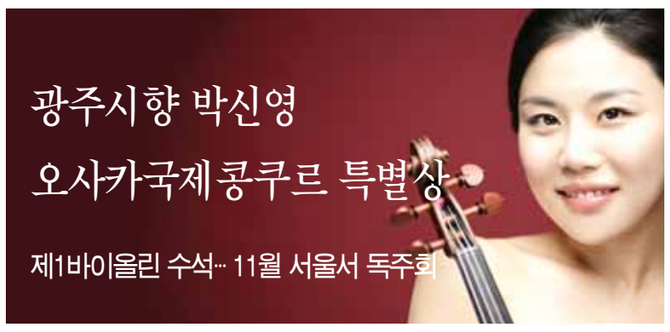

광주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중인 박신영씨가 지난 6일 열린 제 13회 오사카국제콩쿠르(OSAKA Music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Espoir Prize)에서 특별상(일본문화과학성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씨는 지난 8, 9월 열린 세미 파이널에서 라벨의 '찌간느'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 현악부분 한국대표로 선발되었고 파이널에서는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으로 경연에 참여했다.

오사카 국제 콩쿠르는 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대만, 일본 국내 예선을 통과한 연주자들이 오사카에서 본선을 겨루는 대회다.

지난해 오디션을 통해 광주시향에 입단한 박씨는 대전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로 선발됐으며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 예술사와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최고 연주자 과정인 독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며 광주예고 강사로도 활동중이다

지난 5월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열어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오는 11월 7일에는 서울 KNUA 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미술관 강좌 '톡톡! 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은 9일 오후 2시부터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문화센터 이론강좌 '톡톡! 현대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강의는 오병희〈사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나서 '뉴 미디어 아트-비디오아트에서 넷아트까지'를 주제로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 연구사는 특히 미디어 사회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백남준의 '음악의 전람회'를 시작으로 출현한 비디오아트, 컴퓨터가 결합된 디지털 아트의 전개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한편, 다양한 미디어 작품을 보여주면서 뉴미디어아트 미래상도 그려볼 예정이다. 문의 062-613-715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뮤지컬 '밥퍼'와 함께할 배우 찾아요

11일까지 접수·15일 오디션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이 새롭게 무대에 올릴 뮤지컬 '밥퍼'에 출연할 배우 오디션을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남여로 1차 서류전형 심사 후 오디션을 진행한다.

원서 마감은 오는 11일까지며 오디션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뮤지컬단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지원서는 서울시뮤지컬단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창단 51년을 맞은 서울시뮤지컬단은 예술가가 아닌 프로듀서 단장 체제를 구축, 민간 제작사와 공동제작및 펀딩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게 될 '밥퍼'는 국내 뿐 아니라 제3세계까지 확산돼 매일 5000여명에게 밥을 제공하는 '밥퍼나눔운동'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다. 문의 02-399-17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소리회'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어떤 장르라도 관객이 원한다면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흔히 듣던 대중가요 '아빠의 청춘. 피아노 반주에 멋진 화음이 어우러지니 전혀 느낌이 다르다. '이별의 종착역'이 흐를 때는 가슴이 울컥하기도 한다. '남행 열차'와 '짠짜라'가 이어지고 무대에 선 성악가들이 춤까지 추며 분위기를 돋우는 모습은 의외였다.

최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한소리회의 '3시의 데이트' 공연은 흔히 볼 수 있는 클래식 공연 모습이 아니었다. 해금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신작 가곡과 각국의 민요를 들려준 진중한 무대와 아주 대중적인 공연이 어우러진 콘서트의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모두 하나였다.

이날 공연에서 해설을 맡았던 박미애 교수는 '가요메들리'를 선사하기 전 눈도 맞추지 않았던 병원의 노인 환자분이 노래를 듣고 달라진 이야기, 해외 공연에서 교포들이 눈물 흘렸던 사연 등 노래로 마음을 울렸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한소리회는 광주대 박미애 교수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이 주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클래식을 전공하고 대학교수로 강사로, 전문 오페라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관객들과 호흡하는 음악회를 추구한다.

지금까지 26번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106회 공연을 진행한 한소리회는 클래식, 뮤지컬, 재즈, 팝,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맞춤형 공연을 진행한다. 정식 공연장은 물론이고 병원, 복지관, 학교, 공부방, 지하철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미국·태국·인도네시아 등 해외공연도 12회 진행했다.

병원·지하철 등 다양한 장소 맞춤 공연

해외 12회 공연… 전문 무용수에 안무 교습까지

13일 '3시의 한소리 데이트' 영화속 아리아 공연

한소리회도 처음에는 클래식 공연에 '올인'하려했다. 하지만 지하철 등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느꼈고, 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보자 했다.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전문 무용수를 초빙해 안무까지 전수받았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한 토요일의 '3시의 한소리 데이트'는 한소리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한소리회는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기획음악회를 열고 있다. 슈베르트의 '마왕'을 중심으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꾸민 '독일로의 여행', '짚시의 노래', 뮤지컬 '사운드 뮤직'을 올린 가족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1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3시의 한소리 데이트' '영화속의 아리아'는 정통 오페라 아리아로만 프로그램을 짰다.

영화 '파리넬리'중 '리날도'의 '나를 울게 해주오', '쇼생크 탈출' 중 '피가로의 결혼'의 '편지 이중창', '귀여운 여인' 중 '라 트라비아타'의 '안녕 내사랑' 등을 만날 수 있다. 출연진은 박미애·유형민·이윤순·이지영·장은녕·임영란·박정희·이현숙씨 등이다.

박미애 교수는 "관객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셔서 공연할 때마다 힘들기는 해도 즐겁다"며 "무엇보다 매번 바뀌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한소리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전석 만원. 문의 062-227-74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중요무형문화재 장주원 선생 작품 전시

玉의 진수

광주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옥장 장주원 선생의 옥(玉) 작품을 광주시청 1층내 상설전시장에서 전시한다.

상설 전시장에는 장 선생의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녹옥봉황연향로' 등 기증품 15점과 선생의 소장품 중 가장 큰 작품인 다보탑과 반가사유상 2점 등 17점이 전시된다.

이번 상설전시장은 장 선생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옥작품 46점을 광주시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시립미술관에서 소장중인 장 선생의 옥작품 중 이번에 전시되지 못한 35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장 선생은 1937년 목포에서 태어나 1960년 옥 공예에 입문했으며, 1996년 옥 공예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됐다.

장 선생의 용의 입 안에서 따로 도는 여의주를 깎아내는 환주(環珠) 기법과 '고리연결기법' 등 신비스러운 옥 공예 기법은 옥 공예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중국에서도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신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옥장 장주원 선생이 8일 광주시청 1층 상설전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인 반가사유상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그룹 새벽' 초대전, 13일까지 은암미술관

江深水靜

〈강심수정〉

'그룹 새벽'(회장 이존립)이 광주에서 그룹전을 연다.

올해로 21년이 된 새벽은 13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의동 은암미술관에서 '강심수정'(江深水靜·강이 깊으면 물이 고요하다)이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지난 1991년 6명의 회원들로 창립전을 가진 새벽의 33번째 전시로, 은암 미술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한 초대전 형식으로 이뤄졌다.

예술적으로 의기 투합한 30명의 회원 중 22명이 참여, 21년째 창의적 실험 정신을 유지해온 그룹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이존립 회장과 황순칠, 고근호·박은수·이창훈·채종기·한희원씨 등 확고한 예술세계를 구축한 회원들의 평면·조각 작품 24점이 선을 보인다.

고근호 작 '비오는날'

이 회장의 경우 자신이 즐겨 그리는 꽃과 여인을 소재로 한 '정원-여름'을 선보이고 한희원씨는 '언덕에서 본 K도시', 고근호씨의 유쾌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비오는 날'이라는 작품 등도 관람객들에게 눈길을 끈다. 문의 062-231-5299.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